

URL 축약 서비스

- ❖ 긴 인터넷 주소(URL)를 짧게 축약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
- ❖ 미니블로그 서비스인 트위터에 채택되면서 크게 확산됐으며 사용 편의성으로 주목을 받음
- ❖ 구글과 페이스북도 링크 영역 장악 위해 URL 축약 서비스 시장에 진출을 선언함

수익기반 마련



평가표(5점 만점)	
수익성	4
차별성	2
충성도	3
진입장벽	2
리스크	3

- ### 서비스 특징
- **URL 축약** : 긴 인터넷 주소를 짧은 주소로 축약해 제공하는 서비스. 비트닷리는 축약 서비스 시장의 선두업체로 트위터에 축약 기능을 제공하면서 유명해짐.
⇒ 비트닷리는 축약 서비스 상품을 기업용(bit.ly, j.mp)과 개인/무료용(bit.ly Pro, Bitly.tv)으로 공급
 - **링크 영역 추적** : 축약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자주 접속하는 뉴스나 동영상, 사이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.
⇒ 검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인터넷 주소의 링크 영역까지 파악할 수 있음. 이러한 장점 때문에 구글과 페이스북이 적극적으로 관련 시장에 진출한 것.

- ### 시장 상황
- 비트닷리의 독주체제
 - 비트닷리의 독주가 거대 사업자인 구글과 페이스북의 시장 참여로 견제를 받게 될 전망.
⇒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업 업계는 이용자 편의성 증대 측면에서 축약 서비스를 적극 도입 추세
 - 비트닷리는 구글과 페이스북 진출 선언 이후 위기의식을 느끼고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 '비트닷리 프로'를 공개함.
⇒ URL 추적기술 활용한 비트닷리티브도 공개함

[서비스 구현]

The screenshot shows the bit.ly website interface. At the top, it says 'Shorten with bit.ly'. Below that, there is a text input field containing a shortened URL 'http://bit.ly/Q1F4'. To the right of the input field are buttons for 'Copy', 'Info', and 'Shorten Another'. Below the input field, there is a 'Source' field with the text 'http://www.nytimes.com/2009/04/22/business/gba...'. There is also a 'Post to Twitter as neller' button and a preview of a tweet: 'In China, G.M. Remains a Driving Force - NYTimes.com http://bit.ly/Q1F4'. On the right side, there are social media sharing icons for Twitter, Facebook, and others.

- ### 주요 파트너사
- **파트너** : Twitter, Tweetdeck, Twirl, Twitterfeed, Seesmic, Tweetie, Qwitter 등
-

- ### 위험 요인
- **경쟁 가열** : 구글과 페이스북 등 독자 서비스 개시
 - **보안 위험** : URL 축약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스팸성 웹 사이트를 구분할 방법이 없음(피싱공격에 취약)

- ### 시사점
- 모바일 시대를 맞아 URL 축약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⇒ 사용 편의성 장점 부각
 - 검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링크 영역이 축약 서비스를 통해 분석 대상으로 드러남
 - 타깃광고 시장과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려는 사업자들의 필수 기능으로 평가되고 있음